제 4 강 쾌락주의와 정서주의 : 윤리는 주관적인가?

- 규범윤리학 : 개인주의적 상대주의 (예) 쾌락주의 - 메타윤리학 (참고도서 : 김태길, 『윤리학』)

※ 주관주의

▲ 쾌락주의

(1) 소박한 쾌락주의
- 1) 나의 2) 현재의 쾌락 추구 : 이기주의적 관능적 쾌락주의로
⇒ 1)은 주관주의 2)는 상대주의
- 쾌락주의의 역리 발생 : 관능적 쾌락은 심한 고통을 낳는다.
- 소극적 쾌락 추구로 변화 : 고통이 없는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 상태 (ataraxia, 평정심)
⇒ 쾌락주의(에피쿠로스)에서 금욕주의(스토아)로

(2) 쾌락주의의 일반적 주장
1) 모든 쾌락은 본래적으로 좋은 것이다.(나쁜 쾌락은 없다)
  - 남을 괴롭히는 가학증 환자의 쾌락은?
⇒ 본래적 가치를 따질 때는 파생결과나 경험적 맥락에서 추상해야한다.
2) 오직 쾌락만이 본래적으로 좋은 것이다.
  - 지식, 아름다움, 미덕 등도 좋은 것이나 그런 것들을 좋게 만드는 것은 그것들이 쾌락의 양을 증대시키거나 쾌락을 주기 때문이다.
3) 사물은 쾌락을 주는 정도만큼 본래적으로 좋다.
  - 똑같은 강도를 갖는 두 쾌락 중 더 오래 지속되는 쾌락이 더 큰 가치를 지님.
4) 어떤 것이건 그것을 본래적으로 좋게 만드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쾌락이다.

※ **쾌락** : 신체적, 감각적 쾌락 < 유쾌한 경험 (고통이 유쾌함을 줄 수도 있다.)
※ **쾌락 개념**에는 즐김(enjoyment), 좋아함(liking), 만족(satisfaction), 쾌락(pleasure) 등이 모두 포함

(3) 쾌락주의의 문제점
1) 쾌락을 직접적 느낌으로 한정할 경우 쾌락 자체가 행복일 수 있는가?
  - 행복은 그 자체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으로 인정하는 어떤 것을 얻을 때 수반되는 것
<예 1> 피아니스트가 자동차 사고로 손 절단 : 나쁜 이유가 무엇인가?
  - 쾌락주의 : 불행을 가져다주기 때문에
⇒ 불행을 느낌으로서 중립적인 상황을 불행한 상황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.
  - 불행은 느낌이 아닌 객관적인 상황(연주를 할 수 없는)
⇒ 용기를 불어넣는다고 불행이 제거될 수 없다.
<예 2> 친한 친구로 여기는 사람이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모욕할 경우, 나에게 불행을 주는가?
  - 쾌락주의 : 아니다
⇒ 그러나 나는 속고 있고, 바보 취급당하고 있다.
2) 쾌락의 주관성이 극복될 수 있는가?
  - 쾌락은 주관적(고통은 덜 주관적)
  - 쾌락은 주관적이나 쾌락에 대한 계산은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규범의 근거로 삼으려고 시도 : 공리주의 (쾌락=고통의 감소)
⇒ 사후적 판단만 가능 : 도덕적 숙고가 불가능
  - 쾌락의 차원을 객관화 가능한 차원만으로 축소, 주관적 차이가 심한 부분은 극소화: need(욕구)의 충족으로 축소, desire(욕망)는 무시

⇒ 행복의 비중 있는 영역 무시

윤리학

▲ 윤리학적 주관주의 : 정서주의 (본격적 논의)

(2) 단순한 주관주의
- 도덕적으로 좋거나 나쁘다 : 사물에 대한 시인이나 비난을 의미할 따름
- 문제점
1) 진지하기만 하면 참인가?
   - 살인이 나쁘다 = 살인이 싫다 : 진지하기만 하면 모두 참이 된다. (판단 불가능)
2) 의견의 불일치를 설명할 수 없다.
3) 논리적인 모순

(3) 정서주의(emotivism)
- 대표자 : 스티븐슨(Charles Leslie Stevenson, 1908-1979)
- 언어의 다양한 용법에 주목
※ 언어의 세 용법
① 사실, 혹은 사실이라 믿는 것을 서술 : 정보 전달
   '노무현은 한국의 대통령이다.'
   '박정하는 비만체질이다.'
   '미국은 석유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.'
② 명령 : 행위 유도
   '말조심 해.'
   '식사량을 줄이시오.'
③ 태도 표현
   '아. 기뻐라!'
   '캡 잘 먹는다!'
⇒ ①은 참 아니면 거짓, 그러나 ②와 ③은 참도 거짓도 아니다.
→ 태도를 서술, 보고하는 것과 태도를 표현하는 것은 다르다. ("나는 노무현을 좋아 한다." 와 "노무현 끝내줘!"의 차이.)
- 도덕적 언어의 기본 성격은 ①이 아닌 ②혹은 ③이다.
⇒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
  : 그것은 나쁜 일이다 =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= 그것 하지 말어!
⇒ 태도를 표현
  : 차태웅은 선한 사람이다 = 차태웅 끝내줘!≠나는 차태웅을 시인한다(태도보고)
- 단순한 주관주의는 도덕적 주장들을 특수한 종류의 사실에 대한 보고, 즉 발언자의 태도에 대한 보고로 파악한다.
- 정서주의 : 도덕적 주장은 사실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**명령**이거나 **표현**이다.
⇒ 주관주의에 대한 세 가지 논박 해결